





Handaxe Art 1000

경기천년 X 주먹도끼 1000

## 전시

### 총괄

이한용(전국선사박물관장)

### 전시기획

주진령(학예팀장)

심경보

### 전시진행

양상훈, 신명중, 이성준, 김소영

### 전시지원

이호선, 이성연, 이미란, 강병현,

김효기, 권아람, 김효정, 허원영

### 전시설계

(주)디자인 나눔

### 전시홍보물

(주)디자인인트로

### 미디어제작

TJ choe(최재영)

### 그래피티

XEVA(유승백)

## 도록

### 기획

심경보, 이성준

### 원고

배기동(국립중앙박물관장)

이한용

### 진행

이성준

### 교정교열

주진령, 이성준, 심경보, 김소영

### 사진촬영

선유민

이만홍(포토아트)

### 발행인

설원기(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발행일

2018년 6월

### 발행처

전국선사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031.830.5600

http://jgpm.ggcf.kr

###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출품기관 및 개인

국립춘천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임근우

### 유물기증

이우형

## 알려두기

- 이 책은 2018년 5월 3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전국선사박물관이 주최하는 <경기천년x주먹도끼 1000>의 전시도록이다.
- 도판설명은 제목(한글, 영문), 작가, 시대, 크기, 재질, 소장처 순으로 표기한다.
- 유물 및 작품의 크기는 ‘가로x세로(높이)cm’를 원칙으로 하고,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일부 다른 방식으로 표기한다.

# 경기천년 X

## 발간사

Preface

010

##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012

## 전시소개

Greeting

014

## 주먹도끼

Handaxe

020

## 여러면석기

Polyhedron

034

## 찍개

Chopper

046

# X 주먹도끼 1000

## Cosmos-고고학적 기상도展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056



000 x 000 x 000



**특별전 ‘경기천년×주먹도끼 1000’을 개최하며**

전곡선사박물관은 지난 2011년 개관 이후, 다양한 주제로 구석기시대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경기천년의 해인 2018년을 맞이하여 전곡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먹도끼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전곡은 1978년, 한탄강 유역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세계 고고학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먹도끼는 고인류의 꿈과 기술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기하학적 아름다움으로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주먹도끼를 통해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비밀을 풀고자 했으며, 예술가들은 주먹도끼에 내재된 인류 태초의 힘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 땅에서 수집된 고고학적 성과와 주먹도끼를 매개로 한 현대 미술을 함께 선보여 주먹도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기천년의 문화 동력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본 전시가 있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귀한 소장품과 작품들을 기증해 주시고 대여해주신 기관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곡선사박물관장  
이한용



**Opening Special Exhibition ‘Gyeonggi’s Millenarian×HandAxe 1000’**

Jeongok Prehistoric Museum has introduced the culture of the Paleolithic Age on various themes since the 2011 opening. The special exhibition has prepared to view handaxe novelly, the Jeongok’s symbol commemorating Gyeonggi’s Millenian year of 2018.

In 1978, Jeongok rose as the center of world’s archeology with the discovery of a handaxe in the Hantan River. The handaxe showed intense human dreams and skills of the humanity and caught modern people with geometric beauty. Archaeologists strived to solve the secrets of Paleolithic cultur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handaxe, and artists intended to express the power of the human race inherent in the handaxe. The exhibition has unearthed archaeological achievements and modern art mediated by a fist ax to excavate a new millennial cultural power of Gyeonggi.

Many contributions were given for this exhibition. A sincere appreciation is given to the organizations and those who have donated precious collections and works.

Director of Jeongok Prehistory Museum  
Lee Han-yong

## 축사

### 전곡, 마법의 주먹도끼 그리고 무릉도원 속의 행복

나와 전곡과의 인연은 1978년 가을에 호암미술관에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그 때만 해도 내가 살던 곳의 고대유적들에서 흔히 나오던 고대의 말타기도구 등을 연구하여 시베리아 평원에서 쿠르간이라는 돌무덤을 파보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살아보아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어른 말씀이 딱 맞았다. 돌무덤은 꿈속에 남아 있고 이제 돌도끼를 발굴하여야 하는 임무가 떨어진 것이다. 그 돌도끼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고고학자로서의 삶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나에게는 마술 돌도끼(Magic Handaxe)가 된 셈이다. 그 이유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주먹도끼, 아프리카의 이시밀라 유적을 발굴할 때 계곡의 바닥을 가득 메운 아슐리안 주먹도끼들을 보고는 너무도 풍요롭다는 생각에 흥분되어 그 계곡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유적을 발굴하였지만 주먹도끼가 이렇게 무더기로 나온 적은 많지 않았다. 수 천점의 석기들이 나오는 유적에서 주먹도끼가 한 점도 안보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주먹도끼는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구석기 고고학자들을 웃게 만든다. 그리고 행복하게 만든다. 주먹도끼가 발굴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순간은 아마도 심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주먹도끼는 단순히 돌로 만든 도끼가 아니라 옛날 말처럼 ‘번개도끼(雷斧, Thunder Axe)’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유럽의 초기 고고학자나 우리나라 선비들도 이 돌을 보면 형태는 기이하지만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음직하다.

그동안 주먹도끼는 사람들에게 셀 수도 없이 많은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이 내가 마술돌도끼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 돌도끼는 임근우 작가를 좀 돌게 만들었다. 춘천의 고인돌 무덤을 좋아하던 사람을 나를 도우라고 전곡에 불러들였으니 램프의 요정, 지니는 없지만 이 주먹도끼가 마술 돌도끼임이 틀림없는 셈이다. 아직도 마술에 걸려서 고고학으로, 이 돌도끼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임근우 작가는 요정 지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곡과 인사동에서 그리고 스페인과 중국 북경에서... 셀 수 없는 행복의 춤을 추고 있다. 고고학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학문이라고 하면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불붙이는 매직스톤 즉, 부싯돌이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 사람들을 시간의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무릉도원도>이다. 시키면 유물들 위에서 피어나는 복숭아꽃은 바로 신선의 마음이 아닌가!

그동안 나는 돌도끼 공부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돌도끼를 만들었다. 오래전에는 강변의 돌을 주워 돌도끼를 만들기도 하면서 ‘돌도끼 박사’란 별명을 붙여준 TV프로그램도 있었다. 하지만 더 보람 있었던 것은 바로 동아시아고고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전곡구석기축제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작은 돌도끼 목걸이를 직접 만들었던 일이다. 아이들이 하얀 돌도끼에 색깔을 칠해서 자신의 목걸이로 만든다. 목걸이에 달린 이 작은 돌도끼도 바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술 돌도끼일 것이다. 그 알록달록한 마술 돌도끼가 가슴 속에 든 응어리를 깨어서 하늘로 날려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어떻게 아느냐고? 행복해지려고 어느 종교든 귀의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읊는 구절들이 있다. 짧지만 운율이 있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한다. 이것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신을 섬기는 구호는 그동안 ‘Jumeoktokii’였다. 나는 주먹도끼 전도사였고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또한 존경하였고 믿었다. 아마도 나에게 걸었던 그 마술은 전혀 풀리지 않을 전망이지만 그저 믿고 싶다. 돌도끼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마술 같은 현실을...

전곡선사박물관은 아마도 지나간 30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결과이다. 나의 청춘의 십 여 년이 서려있는 그 작은 유적사무실이 하꼬방박물관이 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천진한 아이들처럼 모여들어 춤추고 즐기던 그 작은 축제가 큰 황새가 되어 태고의 유적의 모서리에 거울처럼 반짝이는 알(전곡선사박물관)을 하나 낳으니 바로 우리가 전설에서 보던 그 마술이 아니겠는가? 신을 부르는 나의 구호가 주먹도끼였으니 바로 마술을 부린 것 아닌가! 주먹도끼의 마법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환상임을 알려줄 나의 팽이는 영원히 돌 것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배기동

# 전시 소개

## 전시회를 열며

올해 2018년은 경기도 정명(定名) 1000년 즉 경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지 천년이 되는 해이다. 『고려사』 지리지 왕경 개성부 연혁에 따르면, ‘고려 현종 9년 즉 1018년에 개경(개성)을 둘러싼 외곽지역을 묶어 정식으로 경기라 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계산해 보니 올해가 경기천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경기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시 타이틀을 <경기천년x주먹도끼 1000>이라고 붙였다. 이번 전시는 전국 선사박물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물인 주먹도끼를 주제로 경기도 천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의미를 풀어낸 전시다. ‘주먹도끼 1000’에서 ‘1000’은 천년을 기념하는 숫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주 많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는 경기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주 많은 주먹도끼들이 등장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임근우 교수의 주먹도끼 주제 작품들과 이우형 선생이 기증한 주먹도끼를 비롯한 석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소개되는 전시다. 사실 주먹도끼를 비롯한 구석기시대 석기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맹이들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소중한 유물이 되고 감성을 자극하는 예술작품이 된다.

이우형 선생이 기증한 주먹도끼를 비롯한 석기들은 전국리 유적 인근에서 채집된 유물들로서 그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전국리유적에서는 1978년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슐리안 석기는 전기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로서 양면 가공한 주먹도끼가 대표적이다. 이우형 선생이 기증한 유물들은 아슐리안형 석기를 대표하는 주먹도끼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직개류와 여러면석기 등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을 망라하고 있다. 그 수량도 4천 여 점에 달해 전국리 유적뿐만 아니라 한탄강 임진강유역의 구석기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우형 선생이 채집한 유물들은 채집 장소를 포함한 학술적 정보들도 꼼꼼히 기록되어 있어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랜 기간 경기 북부의 문화재 조사에 헌신한 이우형 선생의 노고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전시된 유물은 이우형 선생 기증 유물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높고 형태가 정연한 대형석기들을 위주로 대표유물들을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이 유물들은 임근우 교수의 주먹도끼 주제 작품들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석기에 대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해소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형적인 석기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다양한 주먹도끼 주제 작품들을 전시하는 임근우 교수는 현재 강원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하면서 그간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라는 주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양한 고고학 현장을 두루 섭렵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고고학 이야기를 작품으로 펼쳐내고 있는 임근우 교수가 박물관의 특별전에 참여한 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 있다.

현 국립중앙박물관장인 배기동 관장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재직 시 본인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전국리유적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유적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유적을 보존하고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으로 고고학 축제를 시작하였고, 그것이 바로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연천전국리구석기축제의 시작이다. 그간 이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국리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관심과 애정이 모아져서 23만평에 달하는 전국리선사유적은 원형대로 잘 보존될 수 있었고 마침내 2011년 전국선사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었다.

전국리유적과 주먹도끼에서 깊은 예술적 영감을 받아 주먹도끼와 관련된 작품 활동을 시작 하였던 임근우 교수는 연천전국리구석기축제 초창기부터 전국의 축제에 동참하고 유적의 보존활동에도 힘썼다. 이런 인연을 계기로 탄생한 모임이 바로 전국포럼 이다. 전국리구석기축제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전국포럼과 같은 자발적인 문화재 애호운동이 큰 역할을 했으며 당시만 해도 매우 신선한 시도였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자발적 모임은 드물다고 하겠다. 전국리축제 초창기에 임근우 교수를 비롯한 전국포럼 멤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 전국의 축제를 즐기고 유적도 잘 보존되고 이렇게 전국선사박물관도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전시는 전국포럼과 임근우 교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소박한 감사의 자리다.

수십 년 전 허허벌판 황무지였던 전국리유적에서 젊은 패기로 구석기축제를 만들어내던 임근우 교수의 열정과 돌조각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이우형 선생의 정성까지 더해진 이번 <경기천년x주먹도끼 1000> 특별전은 예술과 고고학이 어우러지는, 주먹도끼가 미술작품으로 재탄생하는 문화적 환생의 전시다. 전국리 주먹도끼가 전하는 이야기에 잠시나마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전국선사박물관장  
이한용

**이우형 기증유물**  
Donated by LEE Woo-hyeong

경기기천년 X 주먹도끼 1000



### 주별도끼 전통차만나다

2019년 11월 15일 ~ 12월 15일

- 1. 주별도끼 전통차만나다
- 2. 주별도끼 전통차만나다
- 3. 주별도끼 전통차만나다
- 4. 주별도끼 전통차만나다



작품명: 주별도끼 전통차만나다  
작가: [작가명]

# 주먹도끼



# Handaxe

주먹도끼는 약 170만년을 전후하여 등장했다.  
돌의 가장자리를 다듬어 좌우대칭을 만들었다. 나무를 다듬거나  
짐승을 해체하는 등 생활 전반에 쓰인 만능석기였다.

주먹도끼 Handaxe

연천 지표수습,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022



023

**주먹도끼 Handaxe**

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주먹도끼 Handaxe**

연천 삼꽃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026**



**027**

주먹도끼 Handaxe

연천 삼꽃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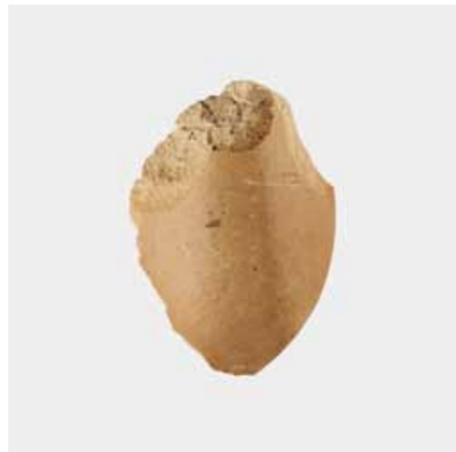
028



029

주먹도끼 Handaxe

연천 지표수습,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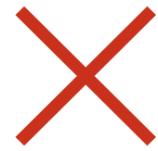
참고 1

주먹찌르개 Pick

연천 삼꽃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 여러면석기



**Polyhedron**

여러면석기는 돌을 여러 번 때어내 형태가 육면체이거나 원형에 가깝고 으스러진 흔적이 있다. 석기를 만들거나 물건을 쥘 때 사용한 망치 또는 사냥돌, 버려진 몸돌로 보기도 한다.

**여러면석기 Polyhedron**

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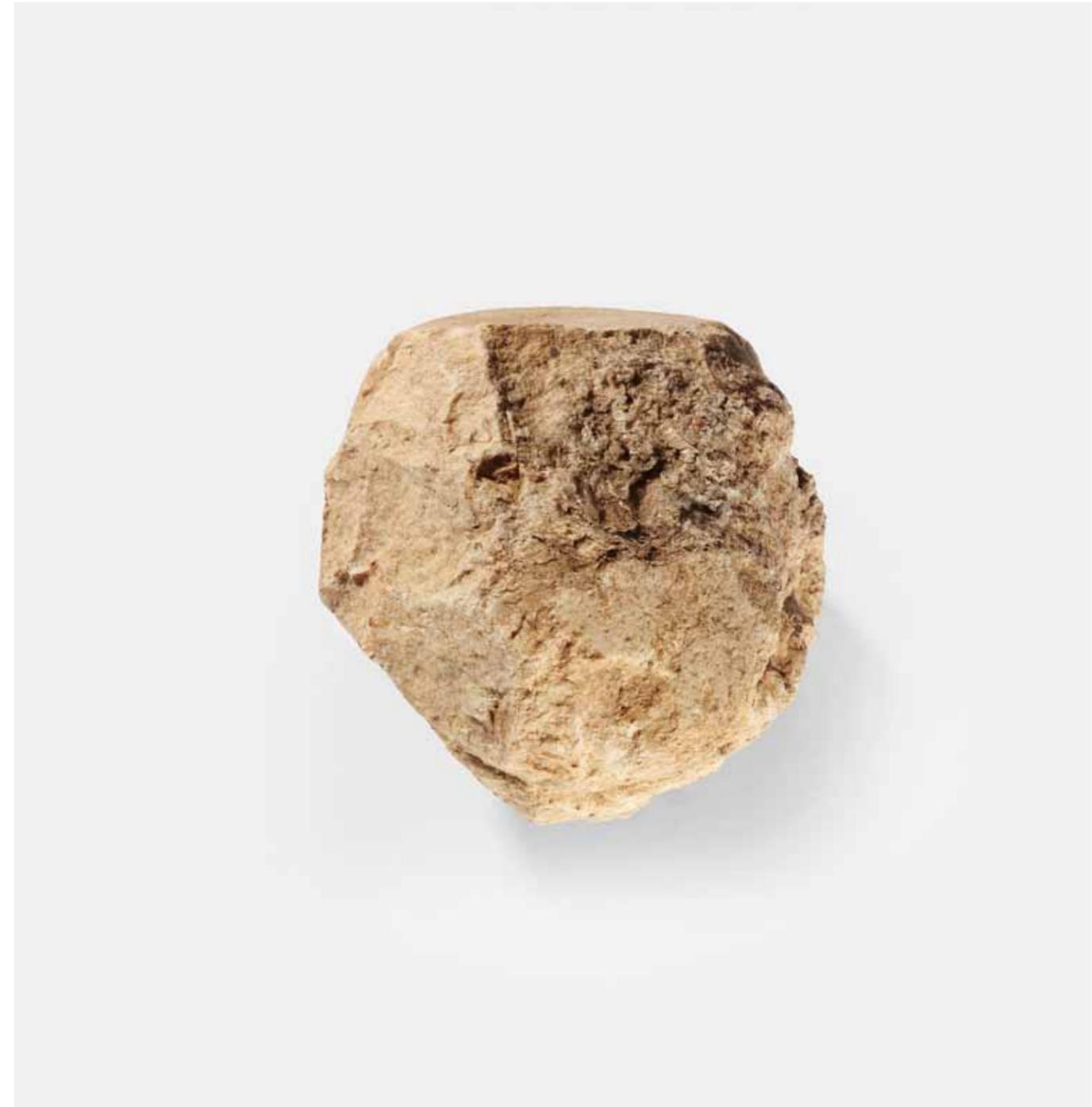
**037**

**여러면석기 Polyhedron**

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038**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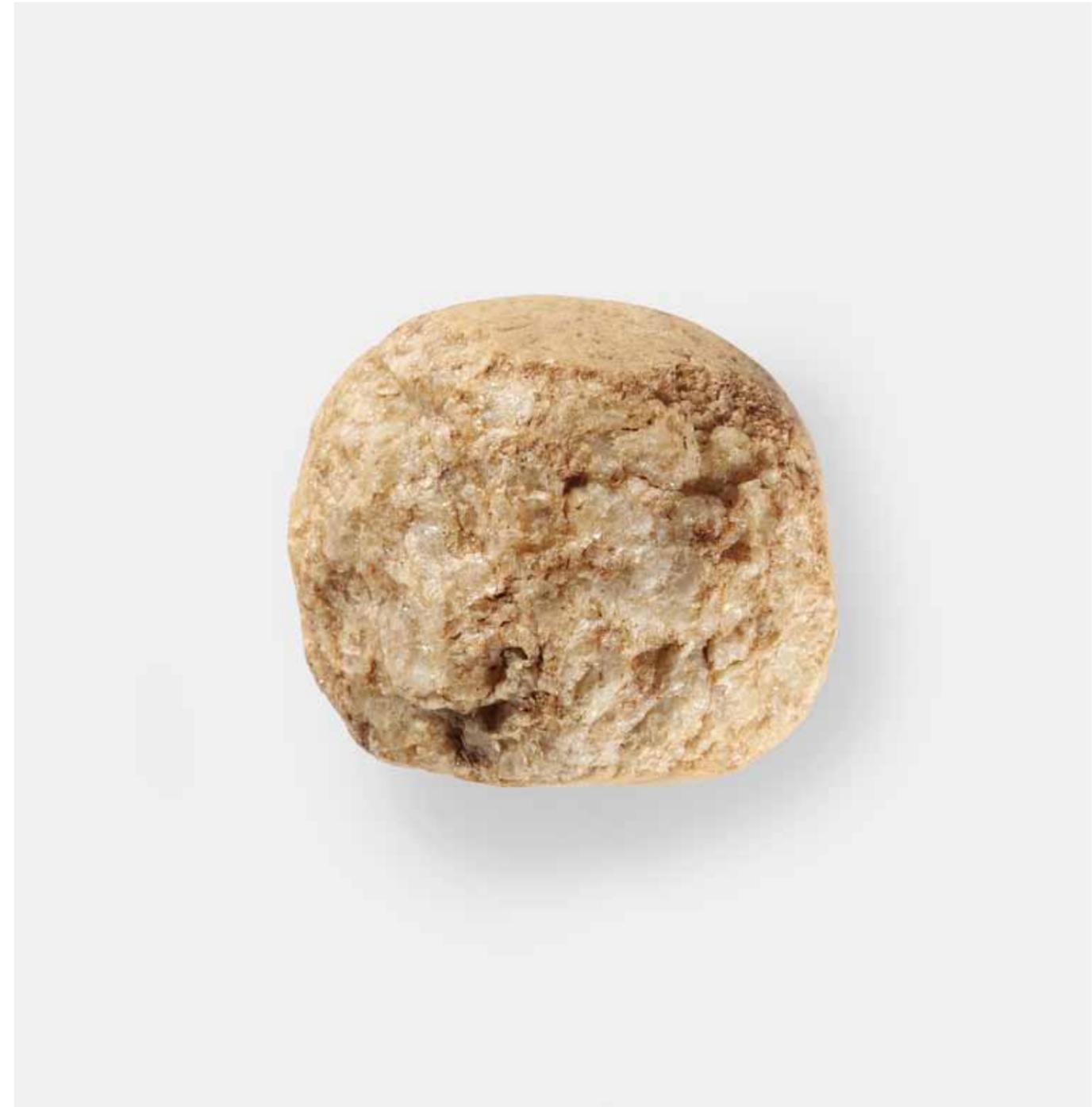
**여러면석기 Polyhedron**

연천 삼꽃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여러면석기 Polyhedron**

연천 삼꽃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참고 2

여러면석기 Polyhedron

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 찍개



# Chopper

찍개는 전기구석기시대부터 제작된 석기로 돌의 가장자리를 한쪽(chopper) 또는 양쪽(chopping-tool)으로 떼어내 날을 만들었다. 나무나 뼈 등을 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찍개 Chopper**

연천 지표수습,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찍개 Chopping-tool**

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050**



**051**

**찍개 Chopping-tool**

연천 삼곶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052



053

참고 3

찍개 Chopper

연천 전곡리 출토, 구석기시대, 이우형 기증  
Paleolithic Age, Donated by LEE Woo-hyeong



054



055

경기천년 X 주먹도끼 1000

화가 임근우의 Cosmos-고고학적 기상도展

IM GOONOO,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 同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1995년 제1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전곡리 구석기유적과 주먹도끼 주제
- 전국구석기축제 예술감독 역임, 설치미술작가 및 자문위원 역임
- 현재: 화가, 설치미술가,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아시아트인서울 대표





드로잉 퍼포먼스 '원시인 Lucy에게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다'

임근우, 2018, 230×360cm, 혼합재료  
IM GOONOO, 2018,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루시와의 키스)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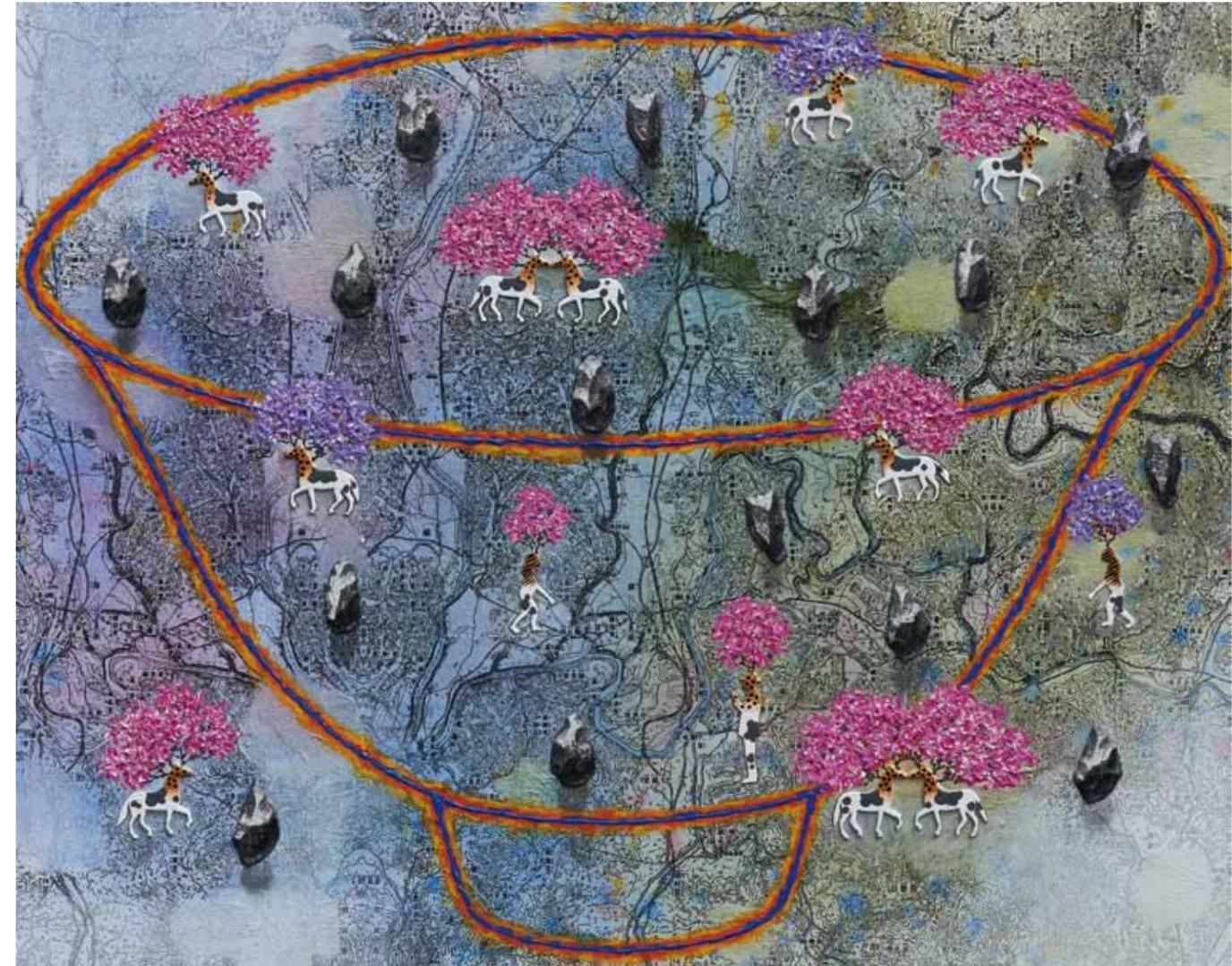
임근우, 2018, 240×480cm, 혼합재료  
IM GOONOO, 2018,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연천 100년 한 그릇)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8, 130.3×162.2cm, 캔버스에 아크릴

IM GOONOO, 2018, Acrylic on canvas



Cosmos-고고학적 기상도(전국 100년 한 그릇)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8, 181.8×227.3cm, 캔버스에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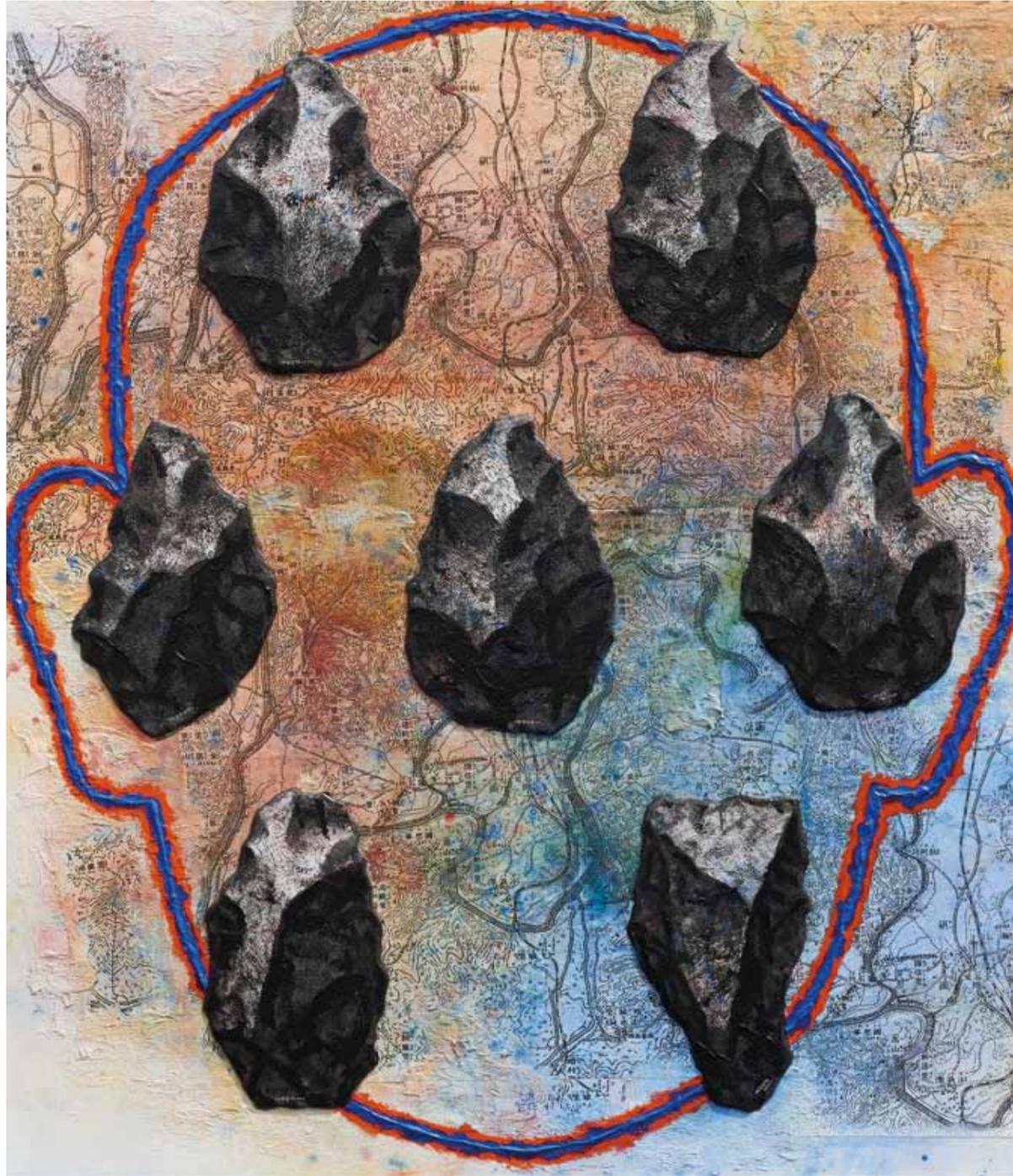
IM GOONOO, 2018, Acrylic on canvas



Cosmos-고고학적 기상도(전곡E55S20-내려보기와 올려보기 그리고 서서보기)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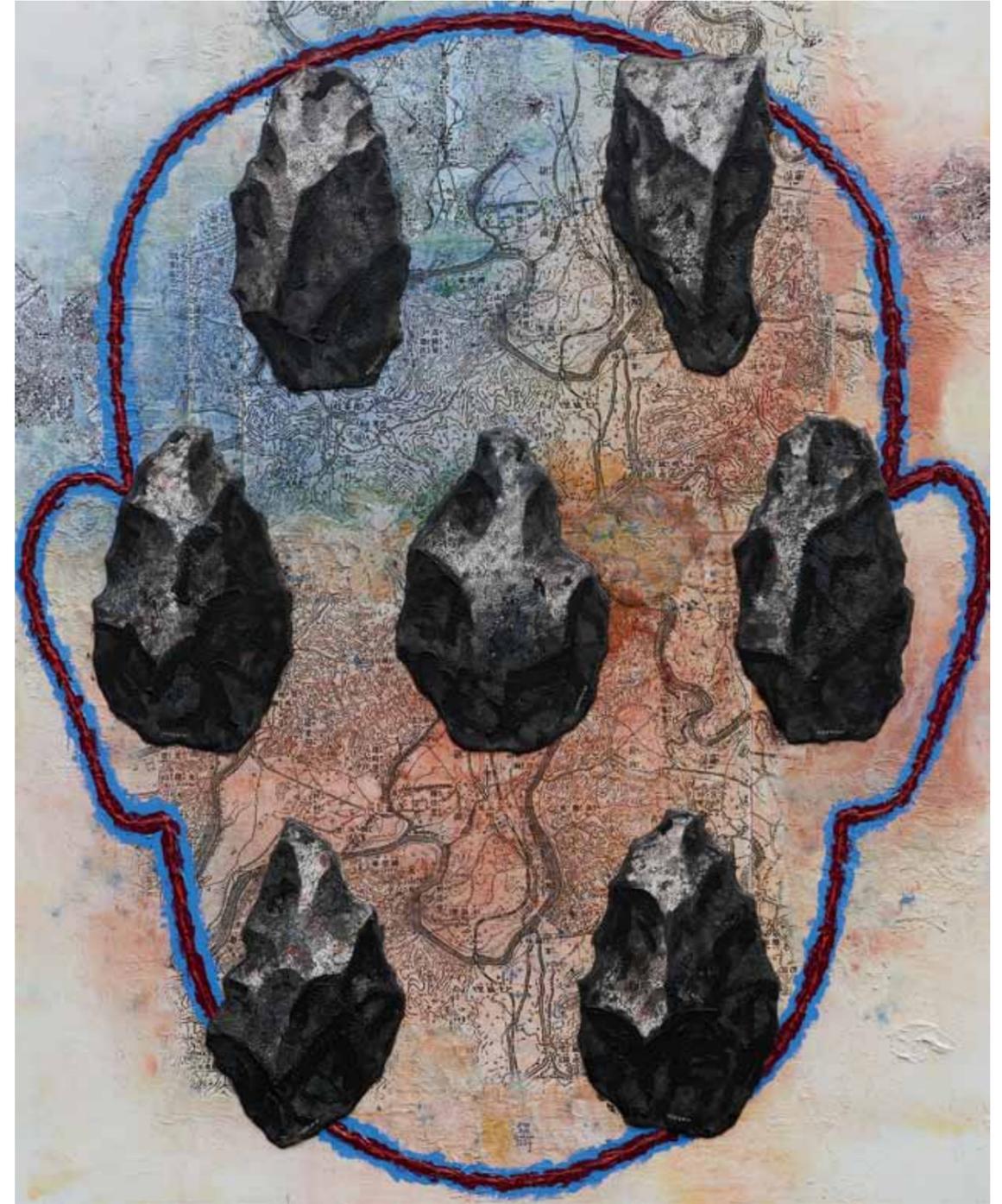
임근우, 2002, 49×124.5cm, 혼합재료  
 IM GOONOO, 2002,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전곡리안1-Red)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8, 227.3×181.8cm, 캔버스에 아크릴  
IM GOONOO, 2018, Acrylic on canvas



Cosmos-고고학적 기상도(전곡리안2-Blue)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8, 227.3×181.8cm, 캔버스에 아크릴  
IM GOONOO, 2018, Acrylic on canvas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1990, 120×320cm, 캔버스에 유화  
IM GOONOO, 1990, Oil on canvas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1995, 116.8×91cm, 캔버스에 유화, 국립춘천박물관  
 IM GOONOO, 1995, Oil on canvas, Chuncheon National Museum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1995, 140×162.2cm, 혼합재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IM GOONOO, 1995, Mixed Media, Arko Art Center(Art Council Korea)



제 1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작(1995년)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1997, 180×250cm, 혼합재료, 국립춘천박물관  
 IM GOONOO, 1997, Mixed Media, Chuncheon National Museum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3, 162.2×130.3cm, 캔버스에 아크릴  
 IM GOONOO, 2013, Acrylic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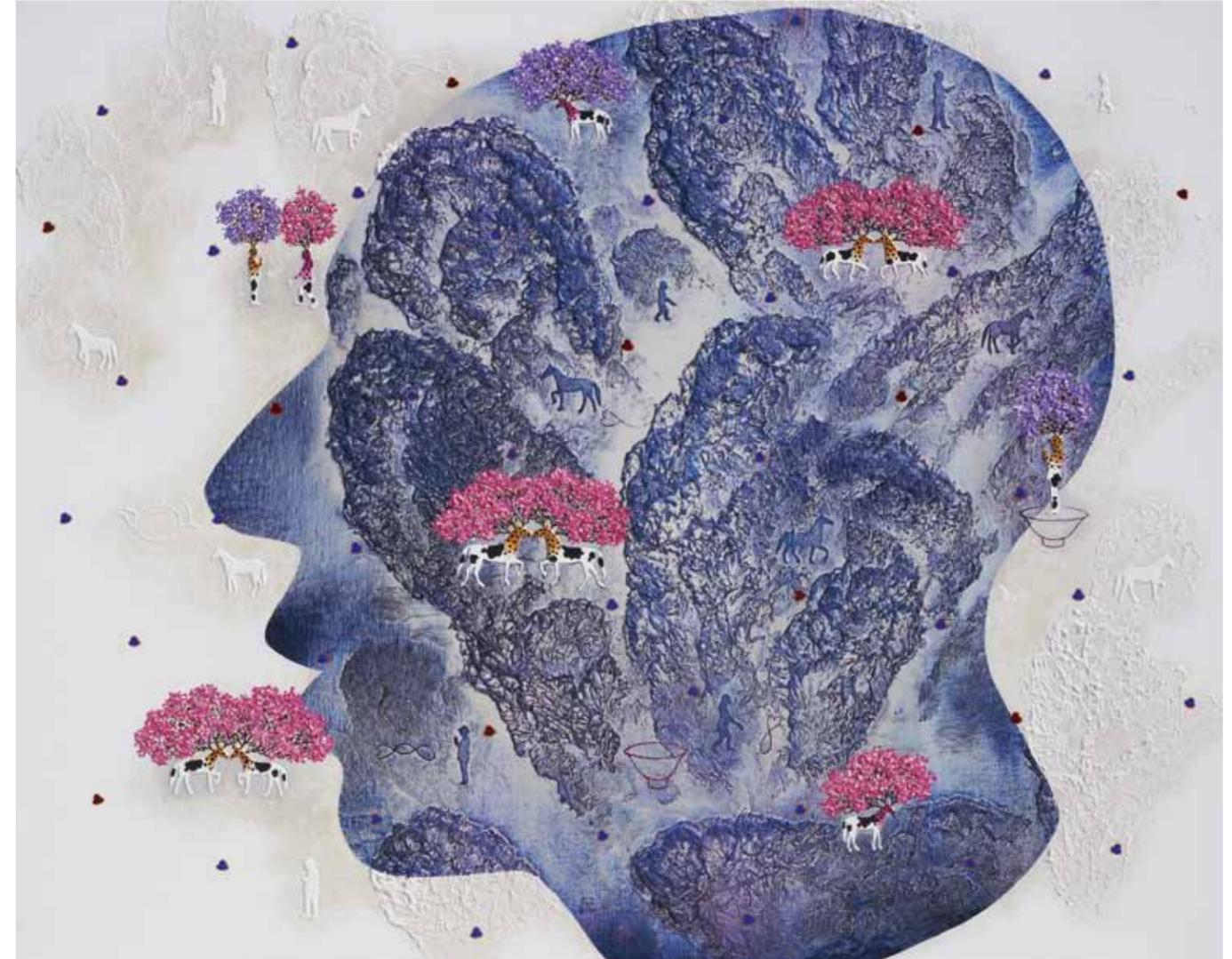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3, 162.2×130.3cm, 캔버스에 아크릴, 개인소장  
 IM GOONOO, 2013, Acrylic on canvas, Personal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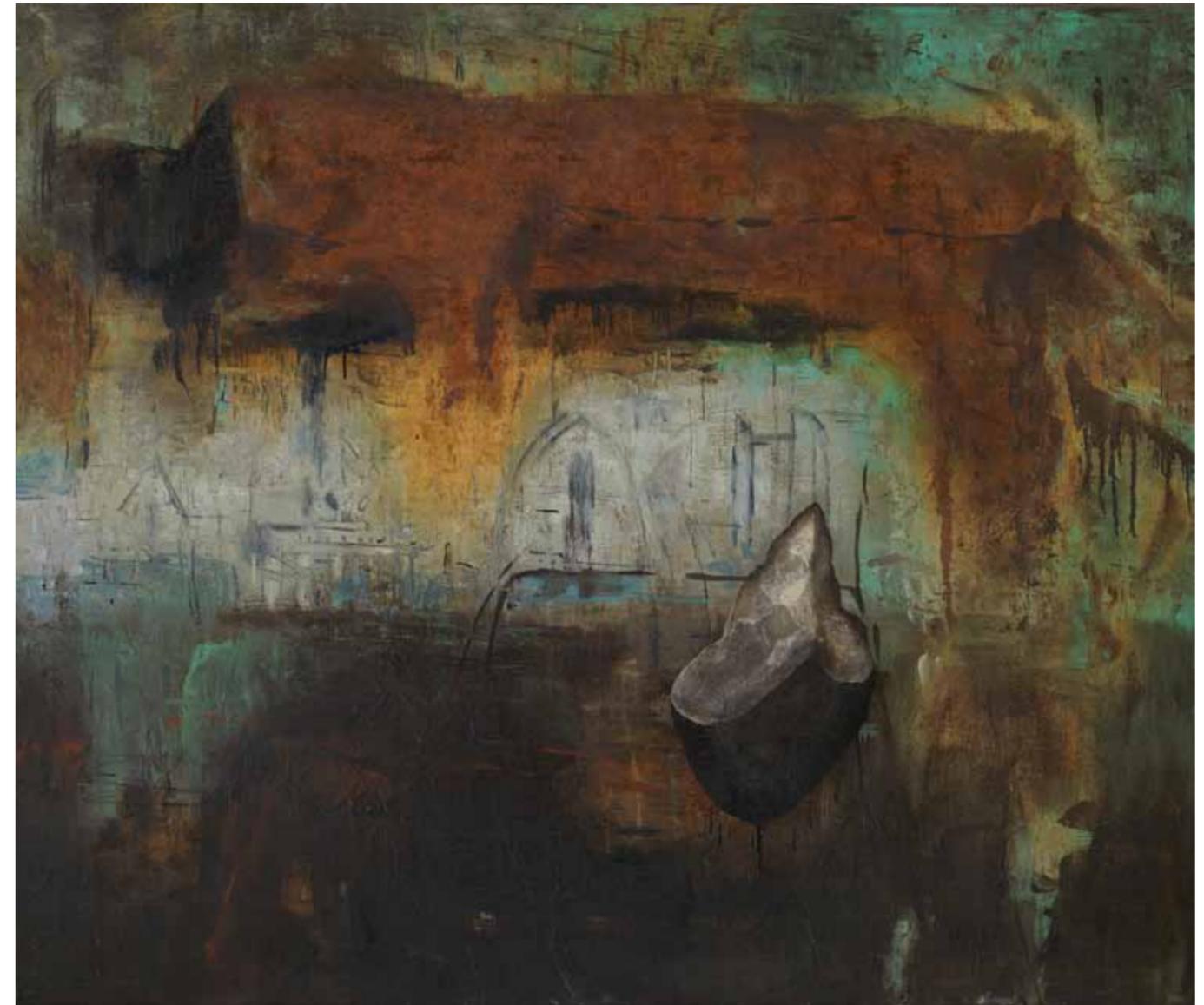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2, 181.8×227.3cm, 캔버스에 아크릴  
 IM GOONOO, 2012, Acrylic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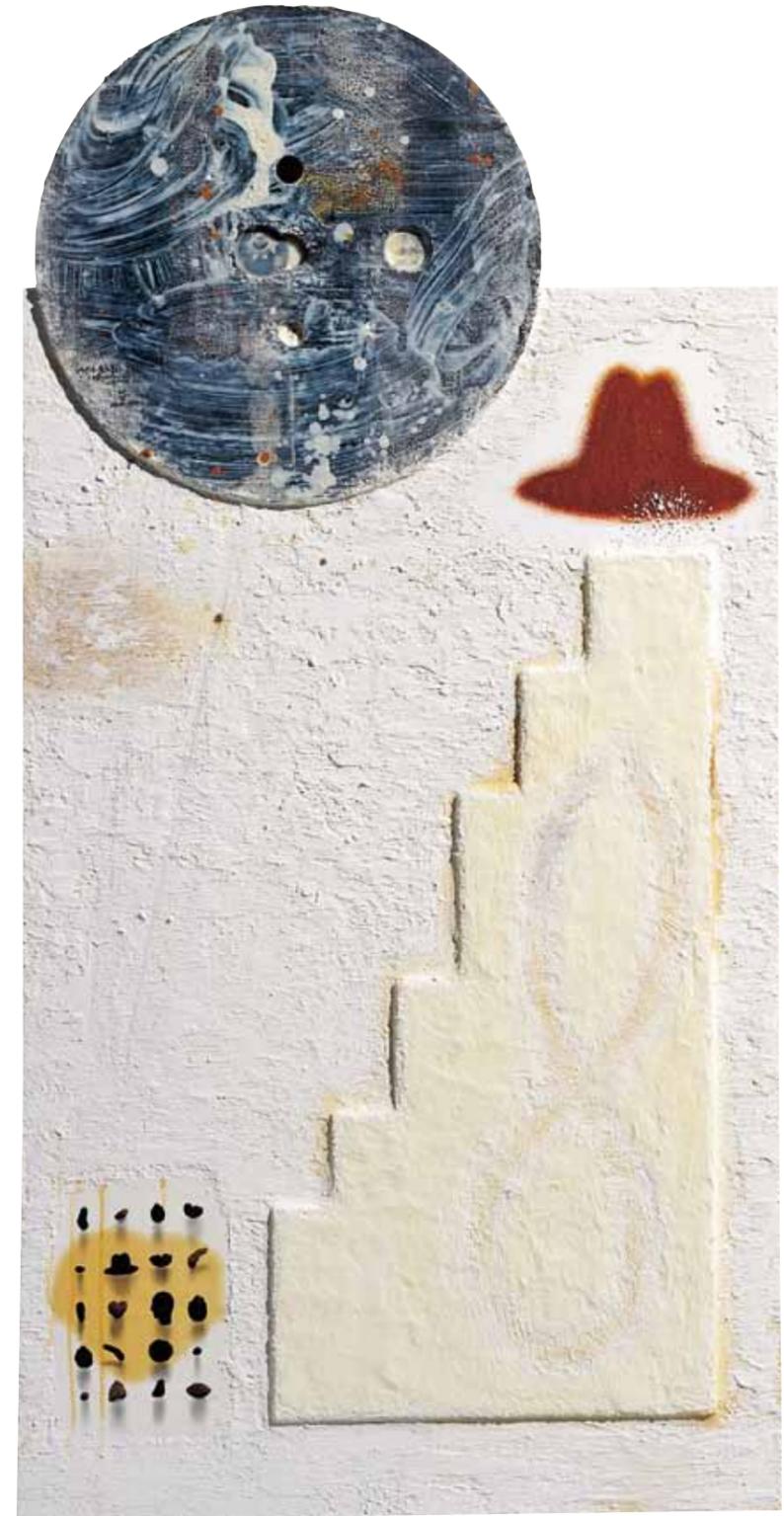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1990, 145×165cm, 혼합재료  
IM GOONOO, 1990, Mixed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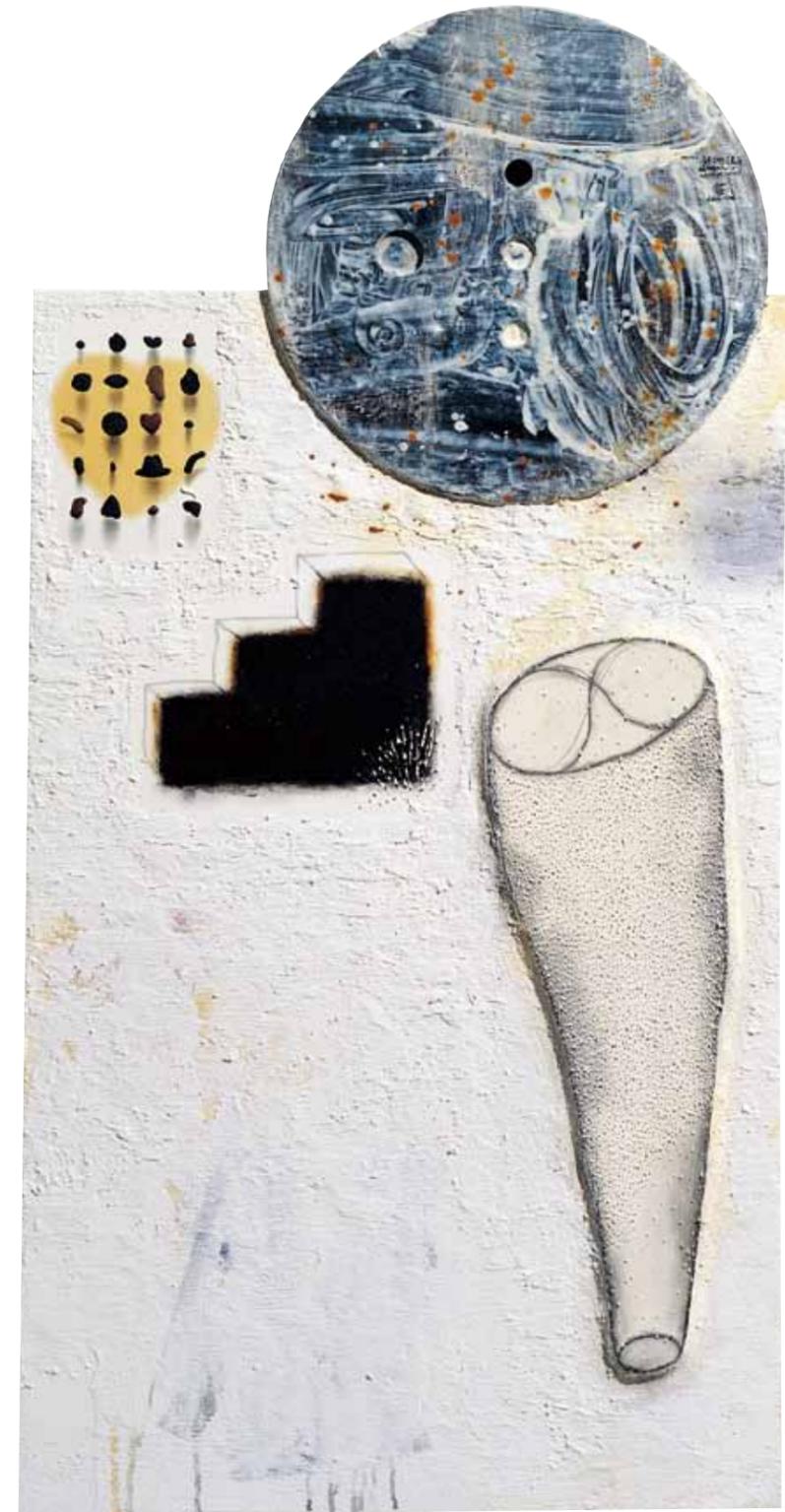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01, 161×80cm, 혼합재료  
IM GOONOO, 2001,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01, 161×80cm, 혼합재료  
IM GOONOO, 2001,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02, 130.3×97cm, 혼합재료  
IM GOONOO, 2002,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02, 112×194cm, 혼합재료  
IM GOONOO, 2002, Mixed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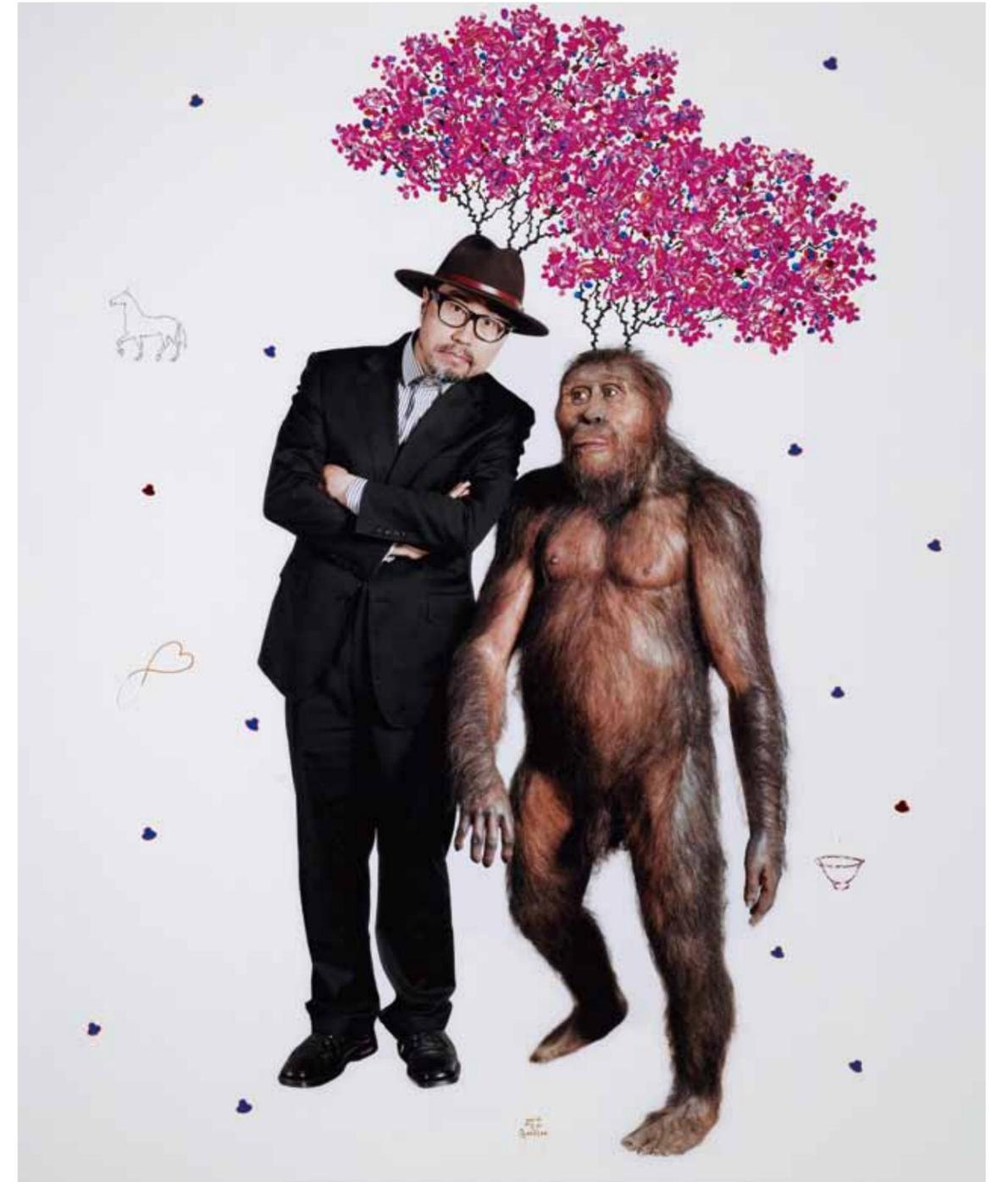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4, 162.2×130.3cm, 혼합재료  
IM GOONOO, 2014,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4, 162.2×130.3cm, 혼합재료  
IM GOONOO, 2014, Mixed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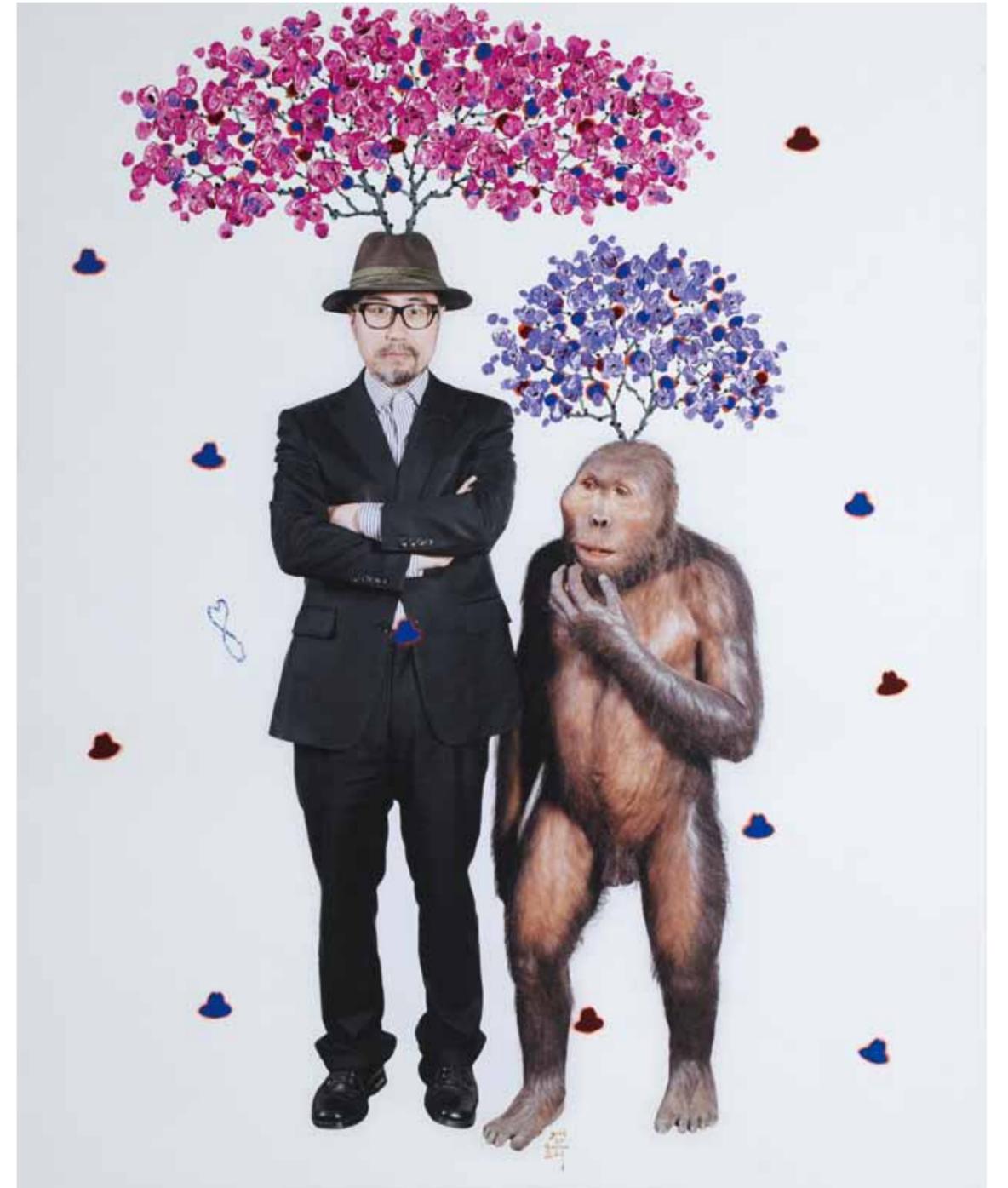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6, 162.2×130.3cm, 혼합재료  
IM GOONOO, 2016,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6, 162.2×130.3cm, 혼합재료  
IM GOONOO, 2016,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6, 162.2×130.3cm, 혼합재료  
IM GOONOO, 2016, Mixed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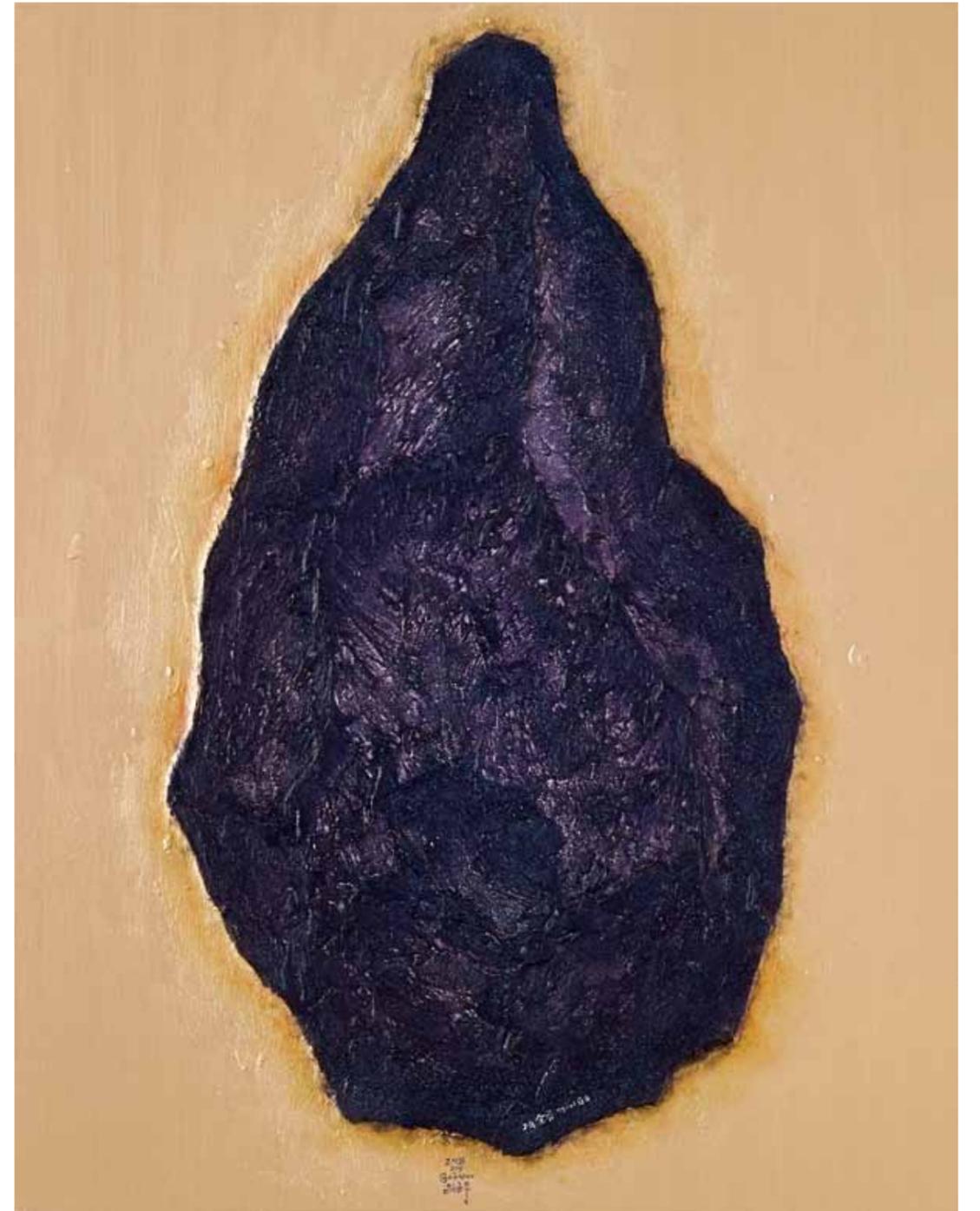
Cosmos-고고학적 기상도(HAN's의 다이아몬드 주먹도끼 환상)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HAN's a pair of diamond handaxe)

임근우, 2018, 120×240cm, 혼합재료  
 IM GOONOO, 2018, Mixed Media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8, 116.8×91cm, 캔버스에 아크릴  
 IM GOONOO, 2018, Acrylic on canvas



Cosmos-고고학적 기상도  
 Cosmos-Archaeological Weather map  
 임근우, 2018, 116.8×91cm, 캔버스에 아크릴  
 IM GOONOO, 2018, Acrylic on canvas





신목神木-Cosmic tree, 임근우, 2018,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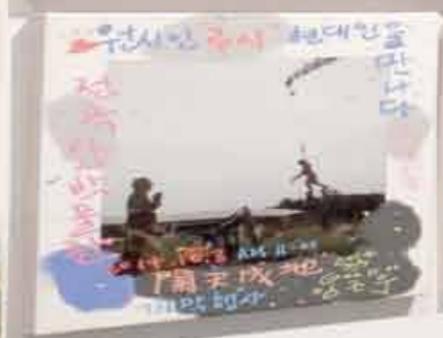




**한국의 주먹도끼** *Archaeological Handaxe of Korea*

주먹도끼는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대표적인 석기 유물이다. 주로 강줄기나 계곡을 따라 살았던 이들이 만든 것으로, 주로 사냥이나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도끼는 1970년대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The Handaxe was a typical archaeological artifact made by Neolithic people. It was mainly made by people living along rivers and valleys, and was used for hunting or carrying heavy loads. This handaxe was discovered in Changwon, Gyeongsangnam-do in the 1970s, and is an important artifact that provides a glimpse into the lives of people at that time.





Handaxe Art 1000  
경기천년 X 주먹도끼 1000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처  
전국선사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031.830.5600  
<http://jgpm.ggcf.kr>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http://www.gointro.com)

ISBN  
978-89-999-0118-8

발간등록번호  
11-B552006-000003-01

© 2018 전국선사박물관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전국선사박물관과  
자료제공처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또는 전재할  
수 없습니다.

